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19일 목요일 음 10월 5일 (12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대체로 호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2°C, 낮 최고기온은 23-24°C로 예상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 주, 오후.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y and wind speed for different time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해질, 달짐, 물때, 간조, 만조. Rows show sunrise, sunset, and tide information.

Table with 3 columns: 내일, 구름많음, 13/15°C, 모레, 구름많음, 9/18°C.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Rows show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

월드뉴스

아이 낳은 성전환 남성, 엄마인가 아빠인가

출생증명서류 두고 법적 공방

영국에서 성전환 후 아이를 낳은 남성이 과연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전환 후 아이 출산한 매킨. 연합뉴스

18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 기자인 프리다 매킨(34)은 2017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출생증명서 기록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수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자궁을 제거하지 않았던 그는 그해 아이를 갖기 위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했고 2018년 아들을 낳았다.

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출생증명서 기록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수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매킨은 1·2심에서 모두 패배한 데 이어 전날 연방대법원도 매킨의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성전환 후 법적으로 남성이었던 매킨은 어느 날 아이의 출생증명서류에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어머니 대신 그냥 '부모'로 등록되길 원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됐다.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프랑스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다시 제소할 계획이다.

매킨은 이후 영국 헌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과 가족에 대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목요일론



이성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의 하루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고 하며, 지혜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에는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고, 스마트폰이 매개체가 돼 사람들이 화면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여명으로 사방이 밝아오면 생체시계가 작동해 자연스럽게 눈을 뜨거나, 가족 중에서 누군가 깨워주거나, 자명종 시계의 알람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해왔다.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뉴스나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하루의 날씨를 확인하고 옷이나 우산 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다.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근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마트폰에서 교통정보를 확인해 빠른 길을 제공해주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직장에 도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여명으로 사방이 밝아오면 생체시계가 작동해 자연스럽게 눈을 뜨거나, 가족 중에서 누군가 깨워주거나, 자명종 시계의 알람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해왔다.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뉴스나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하루의 날씨를 확인하고 옷이나 우산 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마트폰으로 검색해 안내받은 맛집에서 식사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필자도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미국 대선 뉴스와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검색하고, 최신 영화를 감상하며, 취미 전엔 다음 날 일정을 점검하는 등 내내 스마트폰과 함께였다.

하루 일과에서 필자와 가장 많이 붙어 있고 교감하는 새로운 친구이자 정보제공자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 때문에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말이 생긴 것 같다.

우리는 앞으로도 포노 사피엔스 시대를 살 것이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열린마당

제주의 고등학생 너무 대단해요



이세키 요시아스 제주주일본부총영사

지난 11월 14일 제주도 한일친선협회 등과 공동으로 '제2회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지 면에서 고등학생이 외국어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모두 수준이 높아 심사하는 입장에서 점수를 매기기가 곤란할 정도였다.

놀란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 심사위원으로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일본어 전문가도 지난달 온라인으로 개최된 전국 대회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오히려 스피치 내용은 전국 대회보다 구제성이 풍부해 '제주의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지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상공회의소·한일친선협회 관계자들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정에 실 한라대 관광영어학과 교수, 학생들이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예약이 많은 가운데도 참가한 고등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무관중으로 진행됐고,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한 고등학생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낀 그대로 높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첫 번째 참가자의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모습을 깊이 있게 표현한 스피치, 일본어 발음이나 표현력, 무대에서 태도 등 여러 가

포스트 코로나19의 도시계획 방향



하창현 제주도청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코로나19는 사회경제, 주민 생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많아지고, 온라인 상품거래 및 배달이 많아지는 등의 언택트가 현실화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변화보다 빠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19는 고밀도 도시에서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정말 깜짝 놀랐다. 이 대회의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첫 번째 참가자의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모습을 깊이 있게 표현한 스피치, 일본어 발음이나 표현력, 무대에서 태도 등 여러 가

코로나19는 도시공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즉 도시 계획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감염병은 접촉 강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고밀도 도시지역에서 확산이 더 빨라지고,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notice for Omanduk (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with details on funeral arrangements and contact info.

부고 notice for Heonhwah (한리특수우 대표) with details on funeral arrangements and contact info.

부고 notice for Kim Young-sik (남건축사사무소 대표) with details on funeral arrangements and contact info.

부고 notice for Gwon Heung (동일건축 상무) with details on funeral arrangements and contact info.

부고 notice for Hong Du-pyo (前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장) with details on funeral arrangements and contact info.